

2024 새해 이렇게

김희수 진도군수

새 성장동력 발굴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겠다



임신·육아 원스톱 서비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총력 문화예술 자원·천혜의 자연경관 특화 개발 남해안 관광시대 선도

"진도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는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해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먼저 미래 지향형 농수산업 집중 육성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진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를 1월로 앞당겨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한다.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사업비 100억원 확보로 전문 수산연구소를 건립해 군 수산업에 활

력을 불어넣을 미래 양식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진도군의 우수 농수산물을 메가마트, 김스클럽 등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판매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는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1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면허 이용객들을 위한 (가칭) 효도방 조성 및 섬 지역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진도군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 조

성으로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 군수는 "문화예술 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특화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의 도약과 우수한 문화예술자원의 체계화, 명품 관광산업화의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인 진도산해도경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복합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새만남예술(아트)문화타워 조성사업과 인문치유 관광루트 연계사업으로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365일 꽃피는 아름답고 쾌적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도로변, 방조제 등에 무궁화 묘목을 식재해 호국의 고장임을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길을 조성해 군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차난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진도를 주차타워 건립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

용 활성화와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육성계획을 수립해 군민과 상생하며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도군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300억원, 인문치유 관광루트 연계사업 158억원 등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135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2024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 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해의 많은 성과를 마중물 삼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활력 넘치는 진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진행될 신안군 압해읍 소재지 전경.

신안군 압해읍 학교·동서1리 LPG배관망 2025년까지 구축

섬 지역 에너지 불균형 해소

신안군이 에너지 취약지역인 섬 주민에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압해읍 학교리 2개 마을(학동, 월포)과 동서1리 2개 마을(동촌, 서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540세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59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26억원이며, 군비 27억원과 자부담 6억원으로 충당된다. 압해읍 학교리 학동마을은 10억원, 월포마을과 동서1리(동촌·서촌)는 각각 49억원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배관망과 세대별 가스시설 구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안정적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에너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ee@kwangju.co.kr

영암군농업기술센터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암군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1개 읍·면에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은 오는 18일 영암군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농업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영암군은 교육생들에게 올해 농정시책을 설명·홍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장단과 읍·면 교육에 이어 주요 작목 재배 실용 교육도 이어진다.

대봉강 교육은 오는 2월20일 금정면에서, 무화과는 같은 달 22일 삼호읍에서 각각 진행된다.



영암지역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실용교육'을 받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생산과 철저한 영농준비를 위해 이번 교육에 많은 농

업인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 해제면서 20~21일 겨울 승어축제

'황금승어 잡기' 등 22개 프로그램

무안군이 오는 20~21일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리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겨울 승어 축제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구미 당기는 무안! 겨울승어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다.

승어뿐 아니라 곱창돌림, 감태, 새우, 황토고구마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황토갯벌랜드, 도리포 해상 숲길, 도리포 일출·일몰, 칠산대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기간 축하공연과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지역상생 이벤트, 다양한 승어요리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구이존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5개 분야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의 인기프로그램인 '황금 승어를 잡아라'와 '원데이클래스' '승어 초밥 만들기'는 매일 3~4회 운영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겨울철 별미, 건강한 먹거리인 승어로 건강과 맛도 챙기고 무안 청정 갯벌을 품은 겨울 바다와 서해안 황금빛 노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겨 달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등록면허세 2만여건 6억100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의 달 지정 운영

목포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5738건 6억1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

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 자동 입출금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낼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 대상 수상

영광군이 '2023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대상'에서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사)한국노인복지증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

대상은 노인복지에 이

바지한 지자체에 주어

지는 상이다. 공정한 심

사를 위해 행정영역과

복지영역에서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에는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가 참여했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등을 도입

해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이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노인복지 역량과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매우 기쁘고 앞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은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입법예고

해남군이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체면적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

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은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